

공약사업	영덕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						
사업목적	대중교통 소외마을 주민들의 교통비용 부담 절감과 이동 편의도모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						
담당부서	새마을경제과 장	이 상 홍 (730-6230)	교통행정 담당	김 상 덕 (730-6251)	실무관	김 지 웅 (730-6255)	
협조부서	-			이 행 룰	100% (이행후 계속추진)		
사업개요	위 치	영덕군 관내					
	사 업 량	43개노선 1일 160회 운영					
	주요내용	• 변경전 : 구간요금(기본요금 + 거리 요금107원/km) • 변경후 : 전구간 1,200원(중고 900원, 초등 500원)					
추진실적/ 실천계획 (‘14~‘18년)	~‘15년		• 2015. 2. 1. ~ : 사업시행				
	‘16년		• 지속추진				
	‘17년		포항~영덕간 철도 개통에 따른 노선변경				
	‘18년		지속추진				
	임기 후		"				
예산계획 (억원)	계		~‘15년	‘16년	‘17년	‘18년	임기후
	13.5		1.5	3	3	3	3
	국비						
	도비						
	군비	13.5	1.5	3	3	3	3
	기타						

사업효과 (문제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군민들의 교통 복지 여건 개선</li> <li>• 연간 탑승객(360,000명)의 10% 증가(40,000명)</li> <li>•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수입금 감소로 군비보조금 증가</li> </ul>
확장방안 (개선방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18년 교통카드 도입으로 주민 및 관광객 편의 향상</li> </ul>

## 영덕, 시내버스요금 단일화

내달부터 전지역 1200원  
좌석버스도 학생 할인

영덕군은 내달 1일부터 영덕군 전 지역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.

군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구간요금제는 기본요금 1200원에 거리별 가산해 최고 4500원까지 버스요금을 차등 지불해야 한다.

그러나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1200원만 지불하면 군내 어디에나 갈 수 있어 이용객들이 최대 73%의 요금을 절약하게 됐다는 것.

또한, 기존 일반버스에만 적용되던 학생할인요금을 좌석버스에도 적용, 내달 1일부터는 이동거리와 일반·좌석버스 구분 없이 일반인 1200원, 중고생 900원, 초등생 500원만 내면 영덕 어디든지 버스로 찾아 갈 수 있게 됐다.

군 관계자는 “이번 요금 단일화는 이회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원거리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한데 시내버스 요금까지 더 부담한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한 것”이라며 “이 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요금시비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”고 전했다.

김영호기자 kyh@hidomin.com

